예수님 나라의 법칙

성경말씀: 마20:17-28

배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강조했다. 이제 교회의 틀을 잡아가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 살펴본다. 예수님 나라의 첫 번째 법칙을 살펴본다.

잘못된 간구의 시작

마20:17-19 마16:18 이후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기 시작함.
16:21; 17:22 그리고 드디어 20:17-19, 이번에는 십자가와 부활까지 언급함.
마20:20-21 예수님은 십자가를 언급하는데 살로메와 요한과 야보고는 왕관을 요구하고 있음. 치맛바람
그들에게서 배울 점: 마19:27-30, 열두 왕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재판한다. 이 시점에서 이미 죽음과 수난을 두 번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들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다. 십자가가 먼저임을 놓침. ★★★

잘못된 간구의 원인

마20:22 예수님의 대답, 너희가 알지 못한다.
살로메는 영광의 길이 어려운 길인 줄 모르고 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함(행12). 요한은 밧모 섬에 유배됨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의 뜻을 구하며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다.
이 세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아직 모르고 있다.
그들은 세상 방식으로 하늘의 통치를 이해하고 있다.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자기 신하들을 다스리듯 예수님의 통치를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이기적으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먼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이들의 요청은 세상적이요, 육신적이며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교만이 문제다. ★★★
루시퍼는 사14:12-15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고자 하다가 마귀로 타락함.
이제 마귀는 예수님에게 왕좌를 제시했으나 거절을 당하고(마4:8-11) 이들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 자인가에 의해 결정된다(마20:23).

잘못된 간구의 결과

열 제자가 이들을 향해 분개함. 약4:1-3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다, 마귀적이다.

예수님의 교훈

25-27 예수님의 왕국 통치 하에서는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
이 세상의 리더십은 통하지 않는다.
28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나중에 영광을 얻는다.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문제가 생긴다.
조그만 일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께서 쓰신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예수님의 교회에서 크다는 것은 위치나 권력에 달려 있지 않고 인격에 달려 있다. ★★★
내 말과 행동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 내가 올라서는가?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가?
내 말과 행동은 세상의 방식인가? 그리스도의 방식인가?

그러므로 예수님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섬기는 것이 왕좌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과 희생을 통해 왕좌에 이르셨다. ★★★

바른 간구의 태도

하나님께 바르게 간구하려면 바르게 섬겨야 한다.
우리가 그분과 다른 지체들을 섬긴다면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기 전에 섬김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날이 가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섬기는 일을 점점 더 멀리하면 잘못된 것이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면 늘수록 우리로 인해 교회에 평안이 오는가, 분쟁이 오는가? ★★★
우리의 기도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가? ★★★ 문제가 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것이 더 소모되고 우리가 점점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되어야 바른 기도이다.

성경적 사례

바나바: 행4:32-37, 권위자 등 설명
행9장: 사울의 회심,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감(27절).
행11:19-26: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11:24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짐. ★★★
11:25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옴.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함. ★★★
11:26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옴. ★★★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옴, 순서가 바나바 먼저(1, 2절), 1차 선교 여행 이후 2차 선교 여행 때 둘이 갈라섬. 행15:39 이후로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음.
바울의 사역의 기초는 바나바가 세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흥하고 우리는 쇠한다.
교회는 세상의 비즈니스 공동체가 아니다.
남을 세워야 한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주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내가 스스로 영화롭게 되려고 하지 마라. ★★★
나의 각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

결론

하늘의 통치 방식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행복한 자요, 주님이 알아주는 자이다.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오지 마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